

‘수 천 번의 목격’ 사진은 말한다 “5·18 진상 규명하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일보 사진자료집’ 발간

5·18 전후 광주일보 사진기자들이 찍은 3000장 담아 기관총 실탄 장착 사진 등 필름 제목·촬영 일시만 표기

광주일보사가 1980년 5월 전후로 촬영해 보관 중이던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이 자료집으로 나왔다.

자료집에 담긴 사진은 3000여 장으로 모두 광주일보 사진기자들이 5·18을 전후로 금남로 등 광주 곳곳에서 촬영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는 광주일보와 공동으로 펴낸 사진 자료집을 진상규명 활동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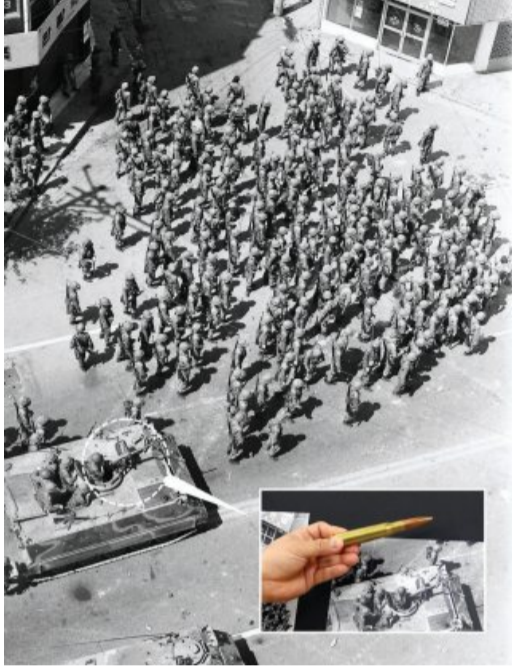
5·18진상조사위는 광주일보사와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일보 보유 사진자료집’을 펴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자료집은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됐다. 각각 1078, 1068 페이지다. 조판으로 총 15세트를 펴낸 자료집은 5·18진상조사위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일보사 등에 배부했다.

앞서 광주일보사는 지난 6월 22일 5·18진상조사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보유 중이던 5·18 관련 사진·필름 3600여장을 기증했다. 중복된 사진 등을 제외한 3000여장을 자료집에 담은 것이다.

이번에 펴낸 사진자료집은 발간사, 목차가 없으며 사진 설명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광주일보사가 필름 문자마다 적어둔 열쇠달과 촬영 연월일, 필름을 찍은 사진은 각 장(章) 맨 앞에 배치하고 페이지마다 사진 두 장을 담았다. ‘1980년 5월 18일 분사 건물 피해’, ‘1980년 5월 15일 금남로 대학생 대도 행렬, 경찰과 대치’라는 식으로 각 장 표지를 배치한 뒤 관련 사진들을 담은 식이다. 5·18진상조사위는 “왜곡이나 선입견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광주일보 사진을 있는 그대로 중이에 옮겼다. 주관적 견해를 붙이지 않기 위해 사진 설명도 없이 필름 제목과 촬영 일시만 최소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자료집에선 ‘실탄 장착 기관총’ 사진이 주목



광주 금남로 출동 장갑차에 실탄 장착 기관총.

광주 금남로에 출동한 장갑차의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된 것을 포착한 사진이다. 5·18진상조사위는 광주일보 제공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앞서 지난 6월 발표하면서 “광주 유혈진압에 나선 전두환계엄군의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된 사진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5·18 이후 42년 만의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사진이 5·18 집단발포 직전(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 44분) 금남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해당 사진은) 도청 앞 집단발포 등 시민을 향한 계엄군 사격이 자위권이라는 전두환 측 주장을 깨부수는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사진자료집에는 5·18 직전 광주지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광주일보사가 공동 발간한 사진 자료집. /니명주 기자 mjna@

대학가 민주화 요구 시위, 계엄군의 시민 진압 장면, 학교 휴교, 어용교수 규탄 시위, 헌혈, 희생 시민,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 5·18 유혈 진압 직후 도청과 금남로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이 수록됐다. 희생자 책상 앞에 까까머리 중·고교생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 계엄군 탱크·헬기, 각종 현수막, 총격 등으로 파손된 당시 광주일보 사옥(전일빌딩) 사진도 담

겼다. 또한 사진자료집 하권 부록에는 광주일보가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보안사령부 자료 및 사진 등 5·18 관련 자료를 수록했다.

5·18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5·18 진상규명 과정에서 광주일보 제공 사진·필름과 이를 통해 펴낸 사진자료집이 의미있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야생 들개’ 집중 포획

광주 동구, 등산객·주민 보호

광주시 동구가 야생 들개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 한 달을 ‘야생 들개 집중 포획 기간’으로 정하고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동부소방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포획 활동을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동구는 최근 무등산 등산로와 중심사 인근 주택가에 야생 들개가 출몰해 등산객은 물론 주민들 불안이 높아지면서 효율적인 포획체계를 위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동부소방서와 협력해 합동 포획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동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야생 동물 포획단 인원 추가 확충 및 대형 포획망과 포획틀을 설치하고 주택가 주변에 야생 동물 기피제를 살포할 계획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동부소방서도 각각 야생 들개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 GPS 트랩 설치,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기 동물 포획단 배치 등 기관별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야간 도시공원 무질서 단속

광주시 남구 이달말까지

광주시 남구는 이달 말까지 야간·새벽 시간대 도시공원 내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남구는 광주남부경찰,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해 남구 내 공원 5곳에서 합동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율방범대는 봉선1동, 봉선2동, 효덕동 자율방범대가 동참한다.

점검 지역은 봉선 근린공원, 유안 근린공원, 푸른길 근린공원, 하늘빛 근린공원, 물빛 근린공원 등이다.

공원 내 과도한 음주·고성방가 등 소음 유발,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공원 내 흡연·야영·취사, 청소년 일탈 행위, 각종 범죄 등이 점검 대상이다.

남구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 탓에 도시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음주와 흡연, 소음 등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부터 과태료 부과, 경찰 인계 등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교원 감축 규탄”

광주교대 총학생회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가 8일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초등교원 감축방침에 반발했다.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여건 개선은 고민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교원 감축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의 초등교원 ‘임용 절벽’

에 대해서도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시 교육청은 초등 교원 임용예정자 수는 6명, 도 교육청은 163명으로 발표했다”며 “시는 지난해 최종 공고와 동일하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다. 전남도는 지난해 200명에서 18.5%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광주 인재를 선발하는 40명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는 수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광주·전남 신규 교원 임용자 수는 줄곧 감소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신규 교원 수를 늘려 지역 교육을 개선하고 광주·전남 인재가 교단에 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주요 보직 인사 단행

정책국장 김정희·교육국장 백도현 임명

전남도교육청이 8일 정책국장에 김정희 고등학교 교장, 교육국장에 백도현 중학교 교장을 발령하는 등 주요 보직 인사를 9월 1일자로 단행했다.

또 정책기획과장에 최정용 여수구봉중 교장, 혁신교육과장에 김여선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유초등교육과장에 노명숙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에 정선영 분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장학관, 미래인재과장에 김은섭 목포제일중 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이와 함께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에 김형신 여선

중 교장, 창의융합교육원 원장에 조정자 분청 교육국장, 국제교육원 원장에 허광양 순천팔마중 교장,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에 서정인 광양중마유치원 원장을 각각 발령했다.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정대성 목포백련초 교장,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서금열 화양중 교장,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임종윤 순천남초 교장,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이계준 분청 정책국장,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강수원 동광양중 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